

# ‘미국=기독교종주국’이란 오해 먼저 벗어나라

## 해외불교칼럼

경주에 계신 한 젊은 스님의 말씀이다. “지금 한국불교가 대처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일부 광신집단의 비이성적 적대행위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미국이 마치 옛 로마제국인양 정치경제문화는 물론 영혼의 통치자처럼 떠받드는 신사대우종의 신앙적 노예근성과 호가호위(狐假虎威)의 허세입니다.”

정작 호랑이는 어느 체도 안하는데 멀찌감치 앞장 선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어 한참 출렁대는 꼴이란 지적이다. ‘선진미국은 곧 기독교 종주국’이란 무지몽매한 등식으로 인해 간혹 일부 순진한 선남선녀들은 마치 불교가 해묵고 낡은 신앙인 듯 현혹되기도 한다.

그 스님의 담담한 비유다.

“오랫만에 고향마을에 내려간 자에게 시골어머니는 웬지 초라하고 쭈글스러운 손 아낙네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자신이 그분의 쭈그러진 배에서 태어나고 그분의 납작해진 가슴을 땀바 자랐음을 잊은 것이다.”

오늘날 한국인들이 불교가 자신의 영혼의 어머니임을 망각하는 죄업을 짓는다는 뜻이리라. 또 얼마 전 어느 흥행사는 자신의 로드쇼에 너무도 업(up)이 되신 나머지 ‘서구기독교 국가를 보라, 기독교를 안 믿으면 못산다’는 투로 패나 오버(over)를 하셨다. 하긴 얼마간 이해되는 일이다. 좀 덜 무식해서 훨씬 더 용감한 분들도 모처럼 외국 나들이에 나서면 시골장터 구석에서 곱갈대는 촌담마냥 온통 얼이 빠질 수도 있을 테니까. 선교를 내세워 살육약탈을 저지른 서구 기독교제국의 과오를 오히려 피해당사자인 동양인이 감격 찬양하는 그 희극적인 동영상은 우리말로만 돼있다. 웬일로 그분께는 알량한 외국어나마 읊조릴 혀의 은총이 안 내린 걸까? 아무튼 거기에 외국어 자막이 안 깔린 덕분에 모든 한국인이 또다시 국제사이버망신을 당하는 비극은 면했다.

오늘날 서구에선 날로 불교가 확산된다는 소위 ‘영혼종주국 미국’이란 짝퉁상표를 내놓으며 한철 장사에 목이 썩이 땅의 ‘영혼장사지’들의 좌판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격이다. 이제 그림 기독교를 믿어서 잘산다는 미국인들이 ‘잘못 살고 파서(?)’ 믿는 불교의 다른 모습을 보자. 지금 미국의 불교는 어디까지 가고 있을까? 다음은 9월 29일 미국의 한 대중음악 전문지에 실린 기사의 일부다.

‘펑크’(Punk)란 낱말에서 공장 불교와 참선을 떠올리긴 어렵다. 그러나 불교를 가슴에 끼안은 미국인들 가운데 의외로 펑크록 음악의 열성팬이 많다. 불교와 펑크록은 어떤 사이일까? 선승이자 펑크음악가인 브래드 워너 스님의 설명이다.

“불교와 펑크는 기독교전통의 제도적 권위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종교적 타율이 아니라 자율과 자아의 책임의식을 공유한다.”

또 다른 스님의 경우다. <다르마 펑크스>란 회고록을 저술한 노아 레빈 선사는 보통불자와는 거리가 멀다. 삭발에 음모 가득 문신을 새긴 그는 흔히 연상하는 선사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나 그 문신들을 가까이 보면 모두가 붓다의 삶을 상징한다. 즉, 그는 ‘움직이는 불화’다. 펑크록을 포함해 그의 음모가 전법도구다. 그가 불문에 든 연연도 남다르다. 그의 부친은 불교저술가이자 법사지만 그 자신은 불교에 거의 무관심했다. 그가 불자가 된 것은 자살이 막장에 이르러 교도소에 복역할 때부터다. 이미 열 살 때 마약에 중독돼 십대를 보낸 그는 결국 마약안락사로 전락한다.

“제 맘은 늘 분노로 가득 찼었죠. 그러나 참선을 통해 한결음씩 붓다의 가르침

에 다가선 거죠.”

이제 그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간다. 문제청소년, 범법자, 노숙자 등 힘든 이웃들에게 참선을 지도하고 불법을 펼친다. 그의 참선지도와 교화방식은 미주와 유럽지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다. 또 그의 윤리관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참선과 소멸’은 불교와 참선, 그리고 펑크록과 자아혁신과정을 현장감 넘치게 전달한다. 참선에 대한 그 나름의 변이

다. “저의 참선수행법은 펑크록과 참 닦았죠. 둘 다 저항적이거든요. 생각을 멈추고 호흡에 집중하라고요?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세요. 저는 생각을 멈추든 펑크록을 듣든 제 하고픈 대로 수행하는 거죠. 우리의 법은 무법(無法)이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영적 아나키스트’(spiritual anarchist)라고요? 하하, 거참 멋지군요! 고마워요.”

그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무법자며, 다르마의 우주적 질서를 따르는 진정한 자유인이다.

번역: 성휴 스님

출처: Buddhism And The Zen of Punk Rock(Day to Day)

##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브루스 조엘 루빈 ②

# 영화, 서구 불교 공포의 공신

여러 번 소개했듯, 영화는 불교 미국 등 서구사회에서 단기간에 뿌리를 넓히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영화 ‘리틀 붓다’ ‘티베트에서 7년’ 등은 불교 소재를 직접 활용한 경우며, ‘스타워즈’처럼 서구인들에게 생소한 팔정도, 사성제 등 불교철학을 대중영상물을 통해 쉽게 풀어가기도 한다. 조지 루커스, 윌리엄 스톤 도반 등 불자 감독, 또 지금 얘기하는 브루스 조엘 루빈 도반처럼 극작가나 소설가 등 불자문인도 열거하지 못할 만치 많다. 그런가 하면,

레이튼 스님의 해설이다. “육신이란 껍데기에서 벗어나 영혼만 남은 셈이 이승에 머물러야 할까? 그것은 물론 물리와 이별을 거부하고 매달리는 ‘집착’ 때문이다. 그와 아울러, 이는 중생구제를 염원하는 보살행의 상징적 표현이다. 대승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보살이 나아갈 바는 윤회의 쳇바퀴를 내스른 도반 등 불자 감독, 또 지금 얘기하는 브루스 조엘 루빈 도반처럼 극작가나 소설가 등 불자문인도 열거하지 못할 만치 많다. 그런가 하면,



사랑과 영혼의 한 장면

## ‘사랑과 영혼’ 중생구제 염원 보살행의 상징 보여줘 이승 떠도는 영혼에게 음식 베푸는 불교의식도 중요

영화감독에서 선승으로 인생행로를 전환한 테이건 덴 레이튼 스님의 경우다. 일본 정토종에서 수계한 그는 컬럼비아대학에서 동아시아연구를 전공한 문인으로 불교영화에 조예가 깊다. 그의 폭넓은 해설을 따라 ‘사랑과 영혼’에 실린 불교적 의미를 되새겨보자.

뉴욕의 윌스트리트의 젊은 금융가인 샘은 도에가인 물리와 행복이 넘치는 중거생활을 한다. 그는 물리가 “사랑해요”라 할 때마다 ‘마찬가지(ditto)’란 대답밖에 못하는 순박한 사내다. 어느 날 은행 계좌에 이상을 느낀 샘은 이를 동료인 칼에게 말하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준다. 샘은 물리와 연극을 보고 돌아오던 밤길에 그녀에게 정식청혼을 한다. 그때 갑자기 괴한의 총격을 받은 샘은 어이없이 목숨을 잃는다. 샘의 시체를 끌어안고 슬피 우는 물리 위로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온다. 이내 샘의 육신에서 그의 영혼이 떠난다. 샘은 자신의 육신이 쓰러져있고 물리가 흐느끼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이전 영혼의 존재가 뒤편을 깨닫는다. 이튿날 연인 물리, 친구인 칼과 동료들이 참석한 샘의 장례식이 치러진다. 한편, 영혼인 샘은 지하철에서 만난 어느 유령으로부터 물건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문이나 벽도 통과하며 내달리는 지하철에도 올라타는 등 영혼세계의 능력을 터득해간다. 하지만 보통 인간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유령일 뿐인 그를 물리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자신을 죽인 자들이 물리마져 해치러라 우려한 샘은 우연히 자신의 말을 알아듣는 짐쟁이 오다메를 만난다. 그의 부탁으로 오다메는 물리에게 위험을 알려준다. 오다메를 통해 물리에게 ‘사랑한다’고 전한다. 그러나 물리가 믿지 않자 샘은 “마찬가지”라 말한다. 비로소 샘의 영혼임을 믿는 물리. 샘은 친구인 칼이 거액을 빼돌리고자 자신을 죽게 한 사실에 분노한다. 샘은 오다메를 시켜 은행에서 칼보다 먼저 돈을 찾아 수녀원에 기부해버린다. 은행계좌가 텅 빈 것을 알게 된 칼 역시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그의 영혼은 악마들에게 끌려간다. 마침내 천국으로 떠나는 샘은 처음으로 물리에게 “사랑해, 늘 사랑했었고”라 말한다. 눈물범벅이 된 물리가 샘에게 속삭인다. “마찬가지”라고. 물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 샘은 찬란한 빛을 흩뿌리며 하늘 속으로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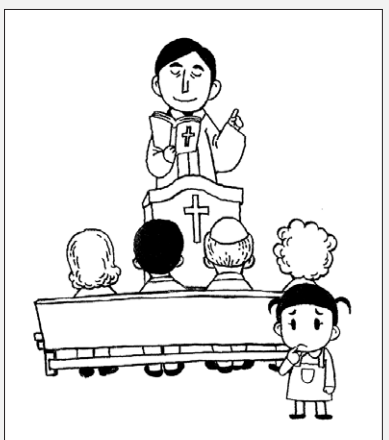
다시 레이튼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자. “이 영화에서 따로 주목할 점이 있다. 살해를 당한 샘은 영혼만 남겨져 떠돈다. 미처 해원(解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굶주려 떠도는 영혼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불교의식은 큰 의미를 지닌다. 샘과 같은 영혼이 복된 길로 떠나는데 짐이 되는 온갖 착심(着心)을 내려놓도록 돕기 때문이다.” ‘사랑과 영혼’에서 사십구제의 중요성으로 이어지는 레이튼 스님의 자상한 해설은 생략한다. (계속)

성휴 스님

# “Who on Earth has started a sin of lying?”

##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 거짓말의 죄를 시작한 게 도대체 누구지?



A minister told his congregation, “Next week I plan to preach about the sin of lying. To help you understand my sermon, I want you all to read Mark 17.” The following Sunday, as he prepared to deliver his sermon, the minister asked for a show of hands. “How many of you have read Mark 17?” Every hand went up. He smiled and said, “Mark has only 16 chapters. I will now proceed with my sermon on the sin of lying.” Then a little girl blinked her eyes, “Who on Earth has started a sin of lying?”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말했다. “다음 주엔 거짓말의 죄에 대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교우님들께서 마가복음 17장을 미리 읽어 오시면 제 설교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일요일이 되자 그는 강론을 준비하며 교인들에게 손을 들어보라고 했다. “어디 몇 분이 마가복음 17장을 읽으셨을까요?” 모두의 손이 올라갔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만 있어요. 이제 그림 거짓말의 죄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자 한 꼬마 소녀가 눈을 깜박 깜박였다. “거짓말의 죄를 시작한 게 도대체 누구지?”

번안: 성휴 스님, 그림: 이태수

## 불교강좌 확대개편

## 英 자유불교방송 법보시

10월 3일 영국의 ‘자유불교방송’은 아스바고사프로젝트와 카투나재단의 공동후원으로 2005년 이래 실시해온 전법 및 각종 불교 강좌를 확대 개편해 ‘다르마차크라의 포드 캐스트’로 무료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1만여 명이 아이튠(itunes)을 통해 접속 중인 이 사이트는 총 35만여 회에 달하는 법문 및 교양강좌 등의 법보시를 펼쳐오고 있다.

동 사이버 불교방송은 법문 이외에도 영상현장취재, 창작전불가 소개 및 알코올중독, 가정폭력, 아동건강 상담 등 다양한 지역과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있다.

출처: WFFB

#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 빙의 치유

- 영을 직접 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사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 퇴마, 최면을 배우실분      •자기최면, 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 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최단기간 실천교육
- 최면기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 빙의(귀신병) 퇴마, 최면? 100% 전수 - 치유
-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 비염, 발기부전 특효

서울지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51번지  
연세빌딩 후문앞 지장사  
☎ 02)796-7579 / H·P 010-3056-3315

•부산교육 : 월, 화, 수, 목      •서울교육 : 금, 토, 일

##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 합장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TEL 051)364-5586 / 010-3056-3315 HTTP://WWW.JIJANGSA24.ORG